

# 남원시 '치매위험군 검사 서비스' 각광

전국 지자체 최초·유일 시행  
올해 고위험군 134명 발견  
2025년까지 1만4000명 검사

남원시가 '치매'로부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는 만 60세~70세까지의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134명의 고위험군 시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는 10~15년 후 발생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군을 찾아내는 검사로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유일하게 도입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단 한번의 혈액검사를 통해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발병률이 높은 '올리고머와 베타-아밀로이드' 농도를 측정해 고위험군을 가린다. 시는 검사결과 경계 또는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이들에게 향후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 및 상담을 연계해 준다. 또 기저질환 관리 중요성 설명 등 대상자 맞춤형 1:1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치매예방실천 생활화를 위한 내실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080명에게 검사를 실시해 고위험군을 가려 통보한 결과, 시민들이 뜨겁게 반응했고 이에 따라 올해 검사 인원을 2000명으로 확대했다. 만 60~70세에 해당하는 남원시민은 1만4000여명, 시는 오는 2025년까지 대상이 되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원시민의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해 치매 걱정 없는 남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심덕섭 고창군수가 26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 60명 위촉

주민주도형 예산 13억원 편성

고창군이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60명의 위원들은 2024년 6월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한다. 위원들은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고 직접 제안하는 참여예산편성 전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군은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주민참여예산을 더욱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 주민참여예산 13억원 편성은 물론,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예산학교, 찾아가는 직능단체 토론회, 온라인 군민투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위촉식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군민과 군을 잇는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민 모두가 활력넘치는 고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남원 관광업무 종사자, 한복 입고 관광객 맞는다

이달말부터 한복근무복 시범실시

'관광의 도시' 남원시의 관광업무 종사자들이 한복을 입고 관광객을 맞이한다. 남원시는 이달 말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주관 '한복근무복 보급사업' 시행에 발맞춰 한복근무복을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안내사, 광한루원 수표업무 담당직원들은 남원의 대표 관광지에서 한복근무복을 입고 관광객을 맞이하게 된다. 시범도입에 앞서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한복을 실제로 입고 근무하게 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복 디자이너의 컨설팅을 통해 최종 디자인을 결정했다. 남원시 한복근무복 디자인 개발에는 권혜진 디자이너(한복스튜디오 '혜온' 대표)가 참여했다. 권 디자이너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한복근무복 디자인 개발에도 참여한 전문가이다. 권 디자이너는 최근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



남원시 관광안내 관계자가 한복을 입고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김연아씨와 함께 한복분야의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디자이너로 선정되는 등 한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양인환 남원시 관광과장은 "지난 7월 문화재청이 '한복생활'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한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남원의 문화·관광자원과 한복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한복문화도시 남원'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사물인터넷 활용 비대면 건강서비스

65세 이상 대상자 150명 모집  
건강 모니터링 스마트기기 제공

정읍시가 정보통신 기술인 지능형사물인터넷(AI-IOT)을 활용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에 나선다. 정읍시는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층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AI-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150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스피

커와 스마트폰, 혈압·혈당계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등을 측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성질환을 관리함으로써 건강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들은 스마트폰 기종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1~5등급),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 관리 자가측정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사업참여가 결정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 면접조사 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건강

군', '전혀약군', '허약군' 등 군별 건강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 이어 6개월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기기(활동량계,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 혈당계, AI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참여하는 노인들이 스마트폰과 대어받은 기기를 연동해 건강 미션을 수행하면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비대면 건강컨설팅과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거나 궁금한 내용은 정읍시보건의료정보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보건의료 관계자는 "AI-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전북교육청, 사무관 승진 인원 19명 확정

인사위원회 역량평가 80%

전북교육청이 5급 승진 규모와 구체적인 선발방법을 결정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2023년 5급 승진임용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 15명, 시설 1명, 공업 1명, 사서 1명, 전산 1명 총 19명이다. 직원들의 자기진작과 배려 차원에서 모든 직렬을 포함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5급 승진대상자 선발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와 역량평가 80%를 반영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교육감이 확정하게 된다. 역량평가는 보고서 작성(40%), 심층면접(30%), 현장평가(10%)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평가는 9월, 보고서 작성과 심층면접은 10

월에 실시한다. 보고서 작성은 업무기획과 문제 인식 및 해결 능력을 평가하고, 심층면접은 국민중심적 사고와 의사소통, 조정통합 능력을 평가한다. 현장평가를 통해서도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리더십을 검증하게 된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직렬에 승진기회도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면서 "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심사대상자의 6급 재직기간 중 업무수행 실적, 청렴도, 구성원과의 협력 정도 등을 검증하기 위해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온라인 공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 두손푸드 '마시는 죽' 인도네시아 수출길

정읍시 칠보면에 소재한 농식품 가공업체 (주) 두손푸드(대표 구성규)의 '마시는 죽'이 인도네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정읍시에 따르면 (주)두손푸드는 인도네시아에 '마시는 죽' 첫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출 기념 상차식을 최근 가졌다. 상차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구성규 대표,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길에 오른 마시는 죽은 5000만원 상당의 단팔죽, 단호박죽, 흑임자죽, 견과죽 등 총 4종으로 6만114봉이다.

마시는 죽은 전북에서 생산된 귀리, 고구마, 단팥, 단호박, 방울토마토, 복분자, 사과, 쌀, 콩 등 12가지의 신선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후대가 간편하고 수저와 그릇 등 설거지가 필요 없으며 바쁜 현대인들과 홀로 식사하기 어려운 홀몸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식단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영양식이다. 구성규 대표는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창출한 이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